

# “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가 국민을 배신했다”

### 오월단체·광주시민사회 성명 발표...일제히 비난 목소리 “공직자 무책임·역사적 책임 회피...도덕적·정치적 실망”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헌법 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24일 5·18기념재단,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내면서 ‘12·3비상계엄’과 이와 관련된

‘내란 방조’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5·18기념재단, 5·18공법3단체는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과 역사적 책임 회피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임 기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

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공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단체는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공직자의 무책임과 역사적 책임 회피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헌재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비난했다.

윤석열정권각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국민을 배신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

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내몬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덕수의 위헌 행위가 파면감이 아니라면 ‘불법 계엄’이었으나 아무도 다치지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내린 판결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위험한 내전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연원을 배신했고, 대한민국이 합리적 이성과 합의된 정의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내팽개쳤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인 국민 총집결 등을 통해 불의를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국민은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나라를 거덜 내도 권력 있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주권자인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 국민의 총집결과 파업을 통해 이 불의를 바로잡겠다. 국민들의 피를 말리며 내란을 옹호한 모든 것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SOCIETY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 오늘의 날씨

예보 06:29 달맞이 03:57  
 맑음 18:47 맑음 12:49



## ‘산불진화대 응시자 사망’ 법원 심판대로

### 유족, 장성군 상대 손해배상 안전조치 의무 소홀 주장

### “5년간 유사사례 7건 발생”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급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다 숨진 70대 응시자의 유족들이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장성군이 현장에 구급차와 제세동기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장성경찰,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3분 전남 장성호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린 봄철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시험 도중 쓰러진 70대 응시자 A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다.

그는 물 15kg이 든 짐점프를 지고, 수변공원 계단 206개를 오르내린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산불진화대 활동을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당시 장성군이 시험을 진행했던 계단의 높이는 13cm였다. 전체 계단이 206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는 26m 남짓으로 아파트 약 10층에 달한다.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중 60세 이상은 59명이었고, 70세 이상은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3분의 1 이상이었다는 것으로 알

려졌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전남 22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와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곳은 장성군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력검정 당시 영하의 체온에도 불구하고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등은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걷기·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 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면서 “올해는 장성군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다치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4일 광주 서구청 민원인주차장 입구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교육청, 학교회계 잘 집행해 40억 받는다

### 2024학년도 집행률 99.0%...2021년 이후 최고기록 지년대 보통교부금 100억원 확보...교육 재정 ‘단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회계 재정을 총총하게 잘 집행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0억원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해 학교회계의 효과적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장려 혜택을 주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학교회계 집행률 99.0%를 기록,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회계 분야 98.0%를 초과해 달성했다. 이는 재정 인센티브가 신설된 2021년 이후 최고 성과다.

이번 목표 달성으로 시교육청은 보통교

부금 4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집행률 목표(96.0%)를 초과 달성하면서 총 6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 달성에 따른 추가 교부금 확보로, 전년도 재정 집행률 항목으로만 총 100억원의 재원을 추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학교회계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집행률이 미비한 부분은 실무자로 구성된 핏셋점검반을 운영하

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 재정 집행률이 낮은 학교를 집중 관리하고 협업해 달성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추가 확보한 교부금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청의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와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예산 집행 효율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교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gwangnam.co.kr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맑음	5~21
임도	맑음	7~21
진남	맑음	8~18
고흥	맑음	6~21
진도	맑음	6~18

### 달마산서 뒤편에 걸린 담비 구조

○전남 해남의 한 야산에서 뒤편에 걸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 구조돼.

24일 해남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13분 해남군 송지면 달마산의 등산로 인근에서 ‘담비가 뒤편에 걸려 있다’는 등산객의 신고가 119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해남군 문화유산팀과 뒤편에 걸린 담비를 확인한 뒤 구조.

담비는 왼쪽 앞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4일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자문을 받아 구조한 담비를 순천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이송, 치료를 마친 이후 방생될 예정이다.

해남소방 관계자는 “뒤편, 울무 등의 불법 염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사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당부.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 여수 백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천연기념물 확인

### 국립공원공단,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등 5종 발견 생물다양성 ↑...해양생물 서식 북방한계선 ‘복상’

전남 여수 백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5종의 국가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국립공원 도서·연안생태측 기본조사에 따르면 여수 백도 군도 4개 도서(여병봉바위, 높은 날섬, 상백도, 나룻섬)에서 확인된 해양생물은 총 296종으로, 해조류 97종, 저서무척추동물 172종, 해양어류 27종으로 파악됐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춘산호, 해송, 해양보호종인 심해송, 천연기념물인 긴가지해송 총 5종의 국가보호종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4개 도서의 해조류 분포를 보면 녹조류 6종, 갈조류 20종, 홍조류 71종으로 분석됐다. 여병봉바위에는 72종(녹조

류 4종, 갈조류 12종, 홍조류 56종)으로 가장 다양한 해조류가 보였고, 나룻섬에서는 22종(갈조류 8종, 홍조류 14종)으로 생물다양성이 가장 낮았다.

여병봉바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둔한진춘산호의 서식이 확인됐고, 녹조류 잠깃말뚝, 갈조류 가시뼈대그물말뚝 등 7종, 홍조류 넓은게말뚝 등 32종, 총 40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이 있었다.

높은날섬에는 총 25종의 해조류 분포가 확인됐다. 이중 녹조류가 1종, 갈조류 6종, 홍조류 18종이 출현했다.

이 곳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춘산호, 해송,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 등 4종의 국가보호종이 확인됐다. 상백도는 녹조류 2종, 갈조류 10종, 홍조류 32종 등 총 44종의 해조류 분포를 보였다. 국가보호종 심해송을 비롯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춘산호, 해송, 긴가지해송이 조사됐다. 나룻섬에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



진춘산호, 긴가지해송이 있었다. 도서별 해조류집 구조를 보면 여병봉바위는 갈태와 넓은게말이 번성했고, 높은날섬에서는 쌍발이모자반과 갈태 등이 많은 개체수를 이뤘다. 총 172종의 저서무척추동물을 보면 해면동물 13종, 자포동물 26종, 대형동물 34종, 연체동물 61종, 환형동물 7종, 절지동물 21종, 극피동물 10종 등이다. 나룻섬이 해양어류 출현종수가 21종으

로 가장 많았고, 상백도가 6종으로 가장 적었다.

나룻섬의 출현종수가 많은 이유로는 나머지 3개 도서와 달리 완만한 경사 구조, 계단식 구조 등 다양한 서식지 환경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출현한 어류 중 63%인 17종이 열대·아열대 종으로 나타났다.

문헌상 제주도에서만 서식이 확인된 후추군형산호, 큰민가시산호, 둥근껍산호가 발견돼 해양생물의 서식 한계선인 북방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 제7호) 및 특정도서로 지정된 백도는 상백도와 하백도로 구분되며 39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졌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